2019년 퇴근길대중지성 2학기/에티카/20191208/샘물

스피노자를 만났습니다.

한참 여름일 때 스피노자를 만났다. 매주 화요일 스피노자를 만나러 가는 길은 험난했다. 갈수록 고속도로가 막혔으며 갈수록 칼퇴가 어려웠다. 게다가 여름내 심상치 않았던 오십견은 운전대 잡는 것 마저 어렵게 했다. 연달아 결석했다. 무엇을 시작하면 결석, 지각을 하지 않으려는 그동안의 습관과도 대치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다음을 기약하며 막을 내리려고 했다. 그 때 'All day 스피노자'는 가겠다고 약속했었다. 그 날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SNS에서 우연히 문탁의 홍보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공동체적 자아의 회복, 부제: 새로운 무리짓기의 기술' 그리고 스피노자의 책을 원전으로 읽는단다. 그냥 다짜고짜 시작했다.

어렸을 때부터 어디에 속해서 활동하고 관계 맺는 것을 좋아했었다. 그 중 제일 오래된 공동체 활동은 종교활동이었다. 약 4년 전부터 종교 활동을 중단했다. 그렇다보니 '정기적으로' 만나는 건 직장 동료와 가족 밖에 없었다. 젠장. 새로운 만남, 배움의 갈망으로 일렁였다. '새로운 무리짓기의 기술'은 어떻게 가능한 건지 궁금했고, 스피노자의 철학이 허우적대는 나를 이끌어 주기를 원했다. 스피노자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해 하며 문탁에 들어선다.

스피노자의 무리짓기의 기술, 공통개념

스피노자의 철학은 정서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룬다. 그동안 철학은 정서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정서를 이성으로 누르면 된다고 생각했다. 이성이 충분하면 감정에 끄달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첫 관념은 정서적이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피곤하다 또는 개운하다고 느낀다. 집 밖으로 나가면 날씨가 춥다, 덥다고 느낀다. 문탁에 첫 날 공부하러 갔을 때 둥글게 만들어 놓은 책상, 어색했지만 따뜻한 무리에 끼어들은 것은 모두 나의 정서와 관련된다. 그런데 춥다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 우리 가족만 해도 내복까지 입고 나가도 추운 내가 있는가 하면 반팔과 겉옷만 입고 나가도 춥지 않은 남편이 있다. 영하의 날씨와 바람의 세기, 일조량 등과 나의 컨디션에 따라 내 신체는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는 변용된다고 말한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정서와 정신, 신체는 무엇이 우위에 있지 않다. 정신과 정서는 모두 신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경험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정신을 '신체의 관념'이라고 표현했다. 달리 말하면 모든 정신은 신체에 대해서 말해준다고 말할 수 있겠다. 신체 따로 정신 따로는 없다. 신체가 저하되면 정신 또한 저하된다.

그래서 스피노자가 문제 삼는 것은 인간의 인식이다. 스피노자에게 인식은 세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종류의 인식은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인식하는 상상적 인식, 1종인식이다. 이것은 인식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 1억5천km이지만 우리는 200걸음 앞의 동전만한 크기의 태양을 인식하게 된다. 태양의 본성이 왜곡된 형태로 우리 신체 각인된 것이다. 또한 1종인식은 경험적 인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좋은 사람, 좀 불친절하게 구는 사람은 좋게 인식하지 않는다. 맛집이라고 찾아갔는데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맛집이 아닌 것, 이런 것들이 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인식인 것이다. 그래서 1종인식으로 표상되는 상상적 인식은 나의 정서와 신체가 변용되어 만들어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스피노자는 인간은 상상적 인식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한다.

스피노자는 이러한 단편적 인식을 '부적합한 인식'이라고 불렀다. 사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다. 마주치는 많은 사람과의 대화는 대부분 각자의 신체에 각인된 표상때로 얘기한다. 그 마주침 속에서 나와 맞지 않으면 틀린 것뿐만 아니라, 너와 나의 경계를 만든다. 한국사회는 이런 인식의 만연함으로 야만성까지 만들어낸다. 1종인식은 외부 사물과의 인과성을 발견하기 보다는 사물들의 질서를 자신을 중심으로 재편해 버린다.

그렇다면 부적합에 대비되는 적합한 어떤 것이 있을텐데 스피노자는 그것을 2종인식이라고 했다.

> 모든 것에 공통적인 것, 그리고 부분과 전체에 균등하고 존재하는 것들은 적합하게 인식될 수 밖에 없다.
>
> (에티카 2부 정리38)

2종 인식은 스피노자가 '이성'으로 부르는 것으로 '실재의 특성에 대해 공통 통념 및 적합한 관념을 갖고 있다는...많은 것을 지각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적합한 인식은 사람들과 공통적인 것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에 어떤 것을 바라볼 때 다양한 관점과 복잡한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지 않는다. 나라는 존재는 많은 사건과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공통적인 생각, 관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새로운 무리짓기의 기술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퇴근길 대중지성에서 스피노자를 공부할 때 한차례(사실은 여러차례) 위기가 있었다. 퇴근길 대중지성은 서두에도 잠깐 밝혔지만 어깨 통증, 퇴근길의 길 막힘, 직장에서 생기는 사건, 발제와 메모의 압박감, 철학하는 것의 어려움, 게을러 지고 싶은 마음 등이 연결되어 한 주 한 주가 수행처럼 느껴졌다. 그럼에도 끝까지 완주하려고 했던 것은 17주를 함께 공부하면서 스피노자 친구들이 스피노자를 바라보는 다양한 생각들과 질문 때문이었다. 그 속에서 여러 각도로 스피노자의 개념을 사유하게 된 것, 어떤 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일상의 예들을 얘기하며 살 붙이기도 하고 떼기도 했다. 스피노자의 철학개념을 빚어가는 '노오력'의 현장. 한 사람의 발제와 메모의 수고로움이 여러 사람의 생각과 만나 리듬을 탄다. 아마도 2시간 30분 동안 사유한 생각들은 그 순간 우리의 역량치의 최대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무리짓기의 기술을 만드는 순간이 된 것 같다.. 공통개념을 만들어 내는 현장.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공통개념은 한 조직의 팀웍 느낌의 관념 아래 생성된 것 같다. 그랬을 때의 스피노자 친구들은 아직 어색했고, 낯설었다. 왜냐하면 팀웍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과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과정이 전제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분명히 관념적이고 정서적인 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소풍처럼 놀러간 'all day 스피노자'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다른 공간과 시간은 새롭게 정서적 고양과 기운을 가져다 주었다. 지금도 같이 바라보며 감탄했던 청현재의 맑고 파란 하늘이 각인되어 있다. 상다리가 휘어지는 각종 먹거리, 커피향기, 산책은 함께 배우는 기쁨을 고양시키기에 충분했다. 마침 에티카의 3부 '정서의 기원과 본성에 대하여'를 강독하기로 했다. 이런 여러 지각 요소가 맞물리면서 우리는 따로 따로가 아니라 합을 맞추어 공통적인 것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각자 사는 곳과 취미, 직업, 나이를 몰라도 가능한 것이 스피노자의 공통개념이라고 생각했다. 새로운 무리짓기는 이렇게 태어나는 것 같다. 그러한 무리짓기가 해를 거듭하며 문탁네트워크의 무리가 되는 것 아닐까.

> 우리의 지성은, 정신이 홀로 있고 자기 자신 이외의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할 때 더 불완전하다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 중략. 왜냐하면 가령 정확히 같은 본성을 가진 두 명의 개인이 서로 결합한다면, 그들은 개인 혼자보다 두 배나 더 강한 개체를 합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인간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다
>
> 에티카 4부 정리18 주석

무리짓기는 사람들과 마주침으로 이루어진다. 늘 좋은 마주침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리짓는 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타자들의 힘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지각하게 한다. 그래서 타자들과 공통적인 것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통해 인간에는 인간보다 더 유익한 것이 없음을 경험하게 된다. 인간에게 공통개념이 왜 좋은지 알게 하는 대목이다. 공통개념의 형성을 가지려는 감각은 무리짓기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기술같다. 모든 개체들은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 주고 받으면서 공통개념을 만들어낸다.

마지막 3종 인식은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많이 파악할수록 신과 더 많이 연관시킬 수 있고 인과적 질서를 꿰뚫는 관념들은 신의 관념과 일치한다. 자기 경험을 넘어 자기의 존재가 우주의 힘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우리는 유한하지만 신 안에 있다는 점에서 무한하다. 스피노자는 인간으로 제한하지 않는 세계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은 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3종 인식은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언제나 신(자연)에 대한 지각으로 끝나면 신에 대한 사랑으로 귀결된다고 했다. 이 과정이 매우 어렵고도 드물다고 했다.

마치며

스피노자를 만나 스포자(스피노자 공부 포기자)가 될 뻔 했지만 엉성하게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엉성하다고 표현했지만 스피노자에겐 덜 완전한 것과 더 완전한 것만 있다. 지금도 생각나는 화요일 퇴근길이 있다. 평소 직장 내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수용하고 이해했던 직원이 그 반대의 모습으로 변하여 모두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 나의 신체 역량도 쪼그라 들면서 집에 가서 무조건 쉬고 싶었다. 그런데 에티카에 대해 뭐라도 한 자 들어야 내 마음이 고양될 것 같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17주 동안의 공부과정이 새로운 무리짓는 기술을 알게 해줬고, 기존 무리들을 지각하는데 큰 힘이 됐다. 함께 공부한다는 것은 힘이 있는 것 같다. 50대에 스피노자를 만나게 된 것은 정말 큰 기쁨이다.